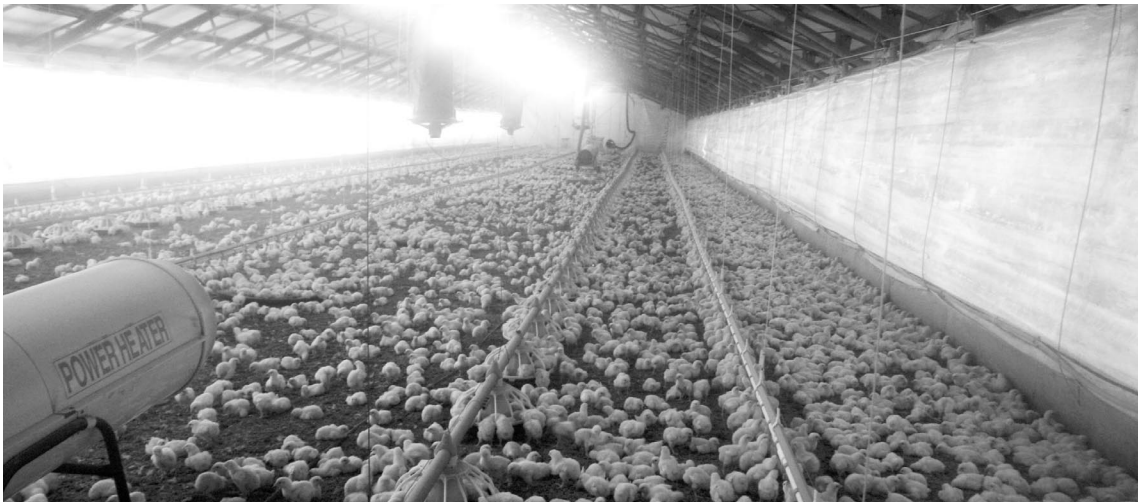


>>> 육계업 현실 및 위기극복 방안

소비자 요구에 맞는 양계산물 생산에 주력



박 태 원
충남육계지부연합회장

독 장수 구구법(어느 여름날 김칫독 장사가 바지
개에 독을 짚어지고 행상에 나섰는데 이 세독
을 팔면 3원이 남는다. 열 개를 팔면 30원이요, 백개
를 팔면 300원이라 금방 부자가 될 것이 틀림없어 한
눈 파는 사이에 돌부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바지개
에 있는 독 3개마저 다 깨어먹었다는 말)… 개인닭 사
육이나 위탁 사육이나 1회에 한 마리 사육하면 200원
이니 10만 마리 키우면 2,000만 원이라 35일로 나누
면 일당이 57만원이라 이거 장관보다 더 많은 일당이
요 금방 큰 부자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어찌랴 1년에 한회만 질 나쁜 병아리나 사
료가 공급될 시 1년 사육이나 수익금은 다 날아가 버
리니 독장수 구구법, 무지개 빛 환상에 사로잡혀 30
여 년을 헤메이건만 거울 앞에 있는 저 늙은이만 덩그

러니 앉아 있으니 허허 세월 그놈 잘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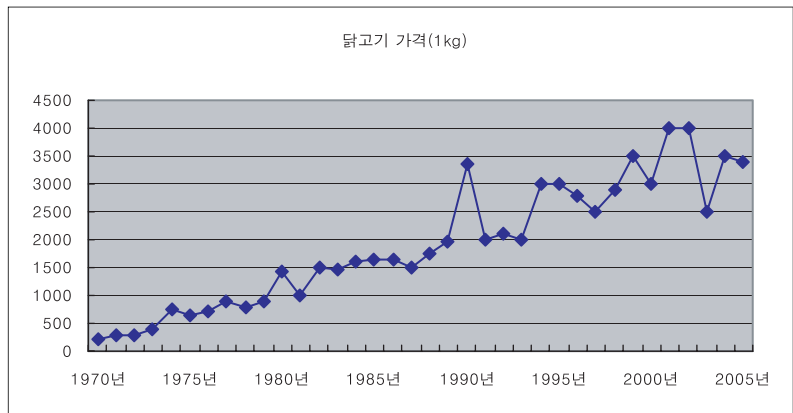
1. 양계산업의 현실

‘겨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저리도 변하였건만 30여 년을 유독 변하지 않고 있는 양계 산물은 남산위에 저 소나무 늘 푸르기만 하더라’ 우리 양계산업 종사자는 사회 봉사원이거나 다를 바 없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봉사인지 실체의 맹인지 알 수 없으니 나는 틀림없는 우매한 농사꾼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한숨만 내쉬고 육계산업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병이 발생하는 곳에 약이 있다는 진리를 위안 삼아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심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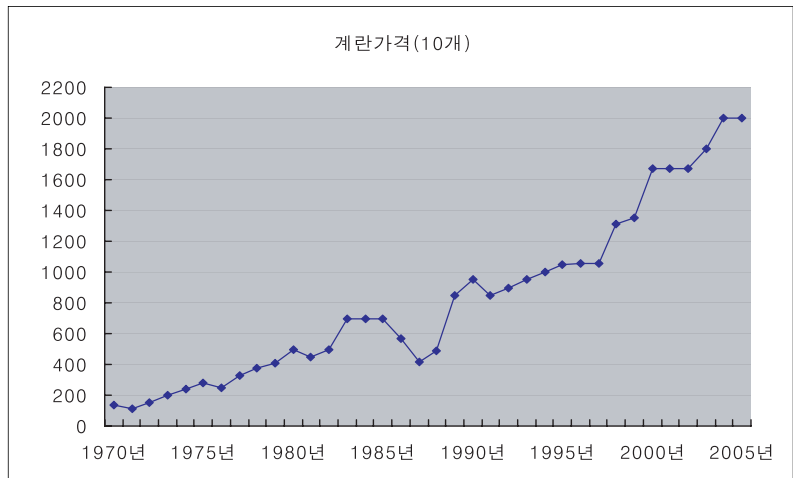
기름값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생산원가는 갈수록 높아만 가는데 그 원수 같은 AI는 잇을 만하면 찾아와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는다. 언론은 무슨 기사거리가 그리도 없어 매일 AI에 대해 대서특필하면서 금방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감염되어 국가가 없어질 듯한 과잉보도로 국민을 우롱하여 양계업계를 초토화시킨 후에야 양계산업 보

호육정책을 내 놓는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양계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시고 드십시오’ 라는 문구로 몇 일간 홍보 랍시고 소비촉진을 위한 선전광고 몇 번하고 있으니 이 한심한 언론보도는 철없는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국가의 존립의 한축에 있는 기관들의 이중 잣대는 잠자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우리 양계산업이 천연보호 기념물인가 보호 육성한다니 그나마도 다행이 아닌가.



〈도표1〉 연도별 닭고기 소매가격(1kg기준), 출처:(사)한국물가정보



〈도표2〉 연도별 계란 소매가격(10개 기준), 출처:(사)한국물가정보

표1. 물가 상승률 가격비교

구분	1970년	2005년	상승률
담배	10원	2,500원	250배
일반시내버스	10원	900원	90배
쇠고기(정육500g)	375원	30,000원	80배
자장면(1그릇)	100원	3,222원	약32배
돼지고기(정육500g)	208원	6,700원	약32배
닭고기(1kg)	210원	3,400원	약16배
계란(10개)	140원	2,000원	약14배

출처:(사)한국물가정보

2. 양계산업의 위기

30여년 전 1978년 육계가격이 700~800원이었다. 사료 값은 1kg당 100원, 2008년 육계시세는 얼마인가! 사료대금은 5배 올라있고 육계시세는 1,500~1,600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반면 자장면은 50원에서 3,222원으로 60배, 시내버스요금은 10원에서 900원으로 90배, 담배는 10원에서 2,500원으로 무려 250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30년간 오른 물가는 우리나라 전품목 물가를 다 조사하면 유독 육계, 계란 값만 독야청청하니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 30년간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이 전무하고 질적인 품질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양적인 생산만 늘리다 보니 자연도태 일보직전까지 온 것이 아닌가. 다행히 일부 선각자들이 친환경 고품질의 양계산업을 위한 사육이 점차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브라질, 태국,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가격이 평균 2\$/kg 정도라고 볼 때 국내 닭고기와 경쟁이 되지 않으며, 앞으로 소비 형태가 냉동 포장육으로 변할 시 수입닭과 국내 생산닭과의 구별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신선육 소비에만 하소연 하고 있을

것인지 깊이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다.

3. 위기 극복을 위한 모색

1) 유행가는 변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닭고기 소비형태도 변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모임 등 다양한 소비자들이 우리 양계 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항생제 사육 자연순환 농법의 친환경 고품질의 닭고기 계란을 시중시세보다 생산자를 보호하며 상호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 형태를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바라던 바인가! 우리가 소비자들이 믿고 찾아 주는 양계 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사육기반 조성, 양심적인 생산을 위한 축사의 환경 개선을 위한 무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생산 이력제 실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어느 농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생산하는지를 알리고 차별성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 우리 스스로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임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3) 가공 유통의 이력제 실시

상기와 같은 양계산물이 HACCP 인정을 받은 도계장에서 몇 일령의 닭을 언제 도계하여 어떤 가공절차를 거쳐 위생적으로 생산되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포장 유통을 실시, 소비자들이 이력제만 보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무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양계**